

## 【 국내금융 뉴스 】

### 4월 경기동행 및 선행지수 동반 하락세

- 현재의 경기흐름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미래의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가 4월 들어 모두 하락세를 나타냄.
  - 동행종합지수는 비농가취업자수와 수입액이 증가하였으나 내수출하지수, 제조업가동률지수, 도소매업판매액지수 등이 감소하여 전월대비 0.2% 하락한 135.6을 기록하였으며,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.9로 전월대비 0.7p 하락함.
  - 선행종합지수는 건설수주액과 종합주가지수가 증가하였으나 소비자기대지수, 구인구직비율, 자본재수입액 등이 감소하여 전월대비 0.3% 하락한 129.0을 기록하였으며,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1.1%로 전월대비 0.5%p 하락함.
  
- 대내외적인 위험요인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투자부진이 경기동행 및 선행지수 하락의 원인으로 분석된 가운데 5월 산업활동지표의 개선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임.
  - 대외적으로 일본 대지진, 유럽 재정위기와 같은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대내적으로도 가계부채 증가, 주택경기 하락, 저축은행 영업정지 등 일련의 사태가 이어짐에 따라 소비심리가 위축됨.
  - 경상수지의 연속적인 흑자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수출로 얻은 수익을 국내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.
    - 4월 내수용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2.2%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, 수출용 출하는 14.3% 증가하여 두 자리 수 증가세를 유지함.
  - 일각에서는 경제 펀더멘털보다 소비심리가 더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면서, 가계부채 문제를 고려하면 소비가 일부 조정을 보이는 것이 경제 전반적인 상황에 비추어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함.
  - 한편, 일부 전문가들은 5월에도 대내외적인 불안요인 지속이 예상되고, 5월 초 휴일 증가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, 자동차 부품업체 파업에 따른 조업차질 등의 일시적 제약요인도 상존하고 있어 산업활동지표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.

(4월 산업활동동향, 통계청, 5/31)